

설 명절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세요

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으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기준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 시적으로 확대 허용한다.

단속유예구간은 슈퍼크리스피 세종조지원 역점(옛 울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구간과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 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채봉 기자

충남도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180만 원 지원해

충남도는 정부 계획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144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급 물량인 1만 2183대 대비 13% 증가한 1만 3763대 규모이며,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 교체 전환지원금 9428대 분을 신설해 지원 폭을 넓혔다.

내연기관차 교체 지원은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 최대 1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노후 차량 교체를 고민하던 차주들이 친환경차로 전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디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는 2차녀 100만원, 3차녀 200만원, 4차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최대로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는 도비 2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180만원, 전기화물차는 도비 240만원을 포함해 최대 1850만원, 전기승합차 최대 1억 70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160만원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및 전환지원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명 국장은 "전기차 전환 가속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충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1.2조 규모의 새해 투자유치 첫 '포문'

충청남도, 금강·천안시와 투자협약 체결…2029년까지 AI데이터센터 건립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충청남도가 1조 2000억 원 규모로 올해 투자 유치 첫 포문을 열었다.

김태흠 지사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용성(주)금강 회장,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부시장)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금강은 2029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천안시 직산군 군서리 일원 10만 2642㎡의 부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천안 AI 데이터센터는 80㎿ 규모로, 금강은 이미 부지를 확보했으며,

한전과 80㎿ 규모 전기 사용 계약도 완료했다. 천안 AI 데이터센터 지금 운용은 파인애프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가 맡기로 했다.

천안 AI 데이터센터 조성 시 신규 고용 인원은 200명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금강은 또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천안 AI 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하면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이번 AI 데이터

센터 유치가 천안의 우수한 교통·임

지 여건과 안정적인 전력·산업 인프리를 바탕으로 성사된 만큼, 충남이 대학민국의 중심축으로서 AI·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AI 데이터센터는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산업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경제의 심장이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기반 시설"이라며 "이번 협약은 충남이 대한민국 AI·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충남은 AI 대전환을 선언하고, '충남 AI특위'와 함께, 산학연이 함께하는 제조공정 AI전환 얼라이언스'로 구성하였으며, 전남부에서 AI 육성과도 신설하는 등 실행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또 2030년 도내 제조공정 AI 활용률 40% 확대 등 AI 대전환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 "금강에서 충남 AI 대전환에 동참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천안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충남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대전형 자율주행버스(A5) 대덕특구 달린다

카이스트-신세계-대덕고 등 12개 거점 연결…3월 말까지 무상 운송 이용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9일 대덕특구 내 주요 연구 기관과 생활 거점을 연결하는 '대전형 자율주행 노선버스(A5)'시범 운행을 개시했다. 이번 사업은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 세종·충북 광역 노선(A2, A3)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도로를 통해 도시 간 신속한 이동에 집중했다면, 이번에 신설된 A5노선(카이스트-반석역~세종터미널)은 보행자와 교차로가 혼재된 복잡한 도심 교통 환경 속에서의 실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노선은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실사기반 고정밀 3D 정밀지도가 탑재된 관제시스템으로 운행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버스의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관제하고, 운영 중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3월 말까지 무상서비스를 통해 기술 안정성과 편의성을 검증한 뒤, 유상 운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시범 운행 기간인 3월 31일까지는 전 구간 무료(무상운송)로 이용할 수 있다. 초기에는 자율주행 차량 1대를 투입하며, 이용 수요가 본격화되는 3 월부터는 운행 횟수를 일 2회로 확대 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인 ETRI는 참여 링크를 통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지난 대전 0시 축제 당시 자율주행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우선 예약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는 '시민 참여형 실증'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단순 여객 운송 서비스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시범 운행 중 수집된 자율주행 데이터는 민간과 학계에 전면 개방된다.

이채봉 기자

지역 대학 학생들이 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첼린지'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인재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는 전문 안전요원이 상시 팀승하여 돌발 상황에 대응한다. 강우나 강설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안전을 위해 수동 운전으로 전환하거나 운행 일정을 조정하는 등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노선은 과학 도시의 강점을 살려 정밀 인프리를 활용한 도심 내 기술 실증에 집중했다. ETRI의 기술력과 대전시의 행정력을 결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율주행의 편의성을 가장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구는 중대재해가 없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한파대비 산업재해 물품 지

리튬의 본격적인 제품 양산을 위해, 서 오창변전소에서 이녹스리튬까지 이어지는 22.9kV 선로(6km) 구축비용 70억 원 중 28억원(국비)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도는 기업, 산업통상부 및 한국 산업단지공단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적극 확보했다. 특히 전력 계통의 이중화 및 보강을 통해 선로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정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수 배억원 규모의 생산피해와 복구 비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제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전기차 캐ブ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 기자

이차전지 전력공급시설 구축 지원

이차전지산업 침체로 인한 기업 경영안정과 성장 도움

충북도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LG에너지솔루션과 이녹스리튬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구축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돼 2026년 연내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 오창 과학, 오창 2호, 오창 테크노폴리스, 오창 나노테크 산업 단지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충북도는 특화단지 내 기업 지원사업 중 하나인 전력·용수·폐수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지원 사업 관련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총 사업비의 40%인 86.6억의 국비를 확보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의 신형 배터리의 안정적인 제품양산을 위해 오창변 전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제2공장까지 이어지는 154kV 선로(4km) 구축 비용 146.5억원 중 58.6억원(국비)을 25년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26년에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양극재 핵심 연료인 수산화리튬 생산 기업인 이녹스

한랭질환 산업재해예방 물품 지급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중구청 소속 옥외작업자 145명 대상으로 '한랭질환 산업재해예방 물품 지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구청 재난안전과는 한랭질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도로유지보수, 하수 관리, 공원 및 녹지관리, 양묘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중구청 소속 옥외작업 근로자들에게 충전식 손난로를 배부했다. 김제선 청장은 "이번 한랭질환 산업재해예방 물품 지급으로, 옥외작업 근로자에게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되어, 지속적인 현장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모든 직원 및 현장 근로자가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구는 중대재해가 없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한파대비 산업재해 물품 지급을 통해 옥외작업자에게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되어, 지속적인 현장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모든 직원 및 현장 근로자가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채봉 기자

충청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2026. 1. 20.(화) ~ 2. 3.(화) 15일간 /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주요안건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 제·개정안 등 처리

